

정진의 힘이 욕망을 지혜로 돌려



성태웅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④1 손오공 설득하는 용마

전 회에 말한 뻔한 전개... 그럼 그 전개가 과연 얼마나 뻔한지 나가 볼까요? 요괴의 부인인 백화수공주 도움으로 요괴의 소굴을 벗어나고, 그 부탁으로 보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공주의 편지를 전하니, 국왕이 요괴를 토벌하겠다고 나서지요. 거기에 저팔계가 만용을 부립니다. 이 저팔계는 정말 곳곳에서 말썽을 피우지요? 욕망에 게으름에, 거기다 영웅심과 공명심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밍상인데, 이 미운 화상을 또 갖고 있다면 조금 정드는 건 또 뭘까요? 우리의 속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저팔계가 사건 일으키는 대목마다, “아, 저게 내 모습 아닐까?”하는 반성이 들면서, “애고고, 나도 저래서 문제야!”하는 자탄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나다가도 웬지 안쓰러워지기도 하는 존재, 바로 그게 저팔계 아닐까 싶습니다. 저팔계의 공명심에 요괴토벌에 나서지만, 앞으로의 전개에서 밝혀지듯이 이 요괴가 정말 비보통 요괴예요. 사오정까지 합세해서 나서지만 당할 수가 없지요. 거기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팔계가 또 뒷전으로 공무리를 빼는 정말 밍상 짓을 하지요. 그 때의 상황을 그대로 한번 돌려 드릴까요? “동생이 잠시 저놈과 싸우고 있어. 난 똥똥 누고 올게.” 애고고, 여러분들도 성질나시죠? 만일 정말 저팔계가 똥을 누고 있다면 그 똥 위로 꼭 주저앉고 싶지 않으세요? 상황이 이러 되니 어찌겠어요? 사오정 잡히고, 앞에서 압축 팍팍 해드린대로 현장법사가 오히려 모든 일의 원흉인 요괴 호랑이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반대로 요괴는 호랑이한테 잡혀가던 공주를 구해준 의인(義人)이 되고... 이제 꾀잡음이 죽게 되었네요. 세상살이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하고, 의인은 비참하게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역사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믿지만, 그건 믿음이거나 우리의 바람에 불과한 경우도 또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걷는 것은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또 복 받은 상태라는 믿음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살게 살고, 악하게 사는 그 자체가 가장 비참한 상태이며,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거지요.

이야기가 잠시 너무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갔나요? 여기서 현장법사가 잠시 호랑이를 억지 둔갑을 하게 되지만, 앞에서 말한 뻔한 이야기 전개로 보아 그냥 그대로 억울하게 죽지는 않을 게 분명한 일. 여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짜잔! 용마나 나오십니다. 갑자기 웬 말이 등장하느냐구 고개



그림 · 최주현

를 가웃거리시는 분은 앞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지 않으신 분! 다시 한 번 정독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현장법사가 타고 가는 말이 또한 비보통 말이지요? 용왕의 아들로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을 관세음보살이 구하여 주고, 현장법사 태우고 인도까지 갈 사명을 준, 말 그대로 용마입니다. 용이 변신해 있는 말이란 말이지요. 자꾸 말, 말 하나가 헛갈리다구요? 하하! 그러네요. 아무튼 이 용마가 나섭니다. 예쁜 궁녀로 변신하여 요괴한테 아양을 떨며 열심히 술을 권하고... 여자저차... 요괴를 묘가 빼돌려지게 취하게 만들고는 틈을 타서 번개같이! 기습을 하지만... 역시 통하지 않네요. 비보통 요괴에게 형편없이 두들겨 맞고는 도망가서 다시 말로 변신하여 압전하게 누구라도 오기를 기다리네요. 불쌍한 용마... 여기서 공을 세웠으면 인도 가는 길 내내 좀 빼기며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절호의 기회라고 담뽀한 것이 비참하게 실패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려니 사오정 잡혀가 게끔 농뿔이 부리던 저팔계가 터덜터덜 돌아오는 군요. “아이고, 형님! 왜 이제야, 그것도 혼자서 오십니까?” 용마가 대충 내막을 알면서도 물으니 저팔계, 우물쭈물 변명... 여자저차... 그런데 저 알미운 저팔계는 상황을 알자마자 모든 거 다 팬개치고 달아나서, 현장법사 모시기 전의 고가장 사위로 돌아가 편안히 살 궁리를 하네요. 그걸 말리느라고 용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무튼 용마의 설득이 먹혀들어가 저팔계가 손오공 다시 불러오려 화괴산 수렵동으로 행차를 하시는 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앞 이야기에서 이 대목의 서유기 제목을 슬며시 알려드렸지요? “뜻 말이 마음 원숭이를 생각하네” 였던가요? 그리고 나칠

올바르지 않은 삶, 그 자체가 '불행' 근심·걱정 떨기 위한 '염' 수행 중요 서원 바탕 등 정진이 필요한 때

계시한테 이 의미를 어느나구 물었던 거 같지요? 그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겠지요? 정확하게 전체 제목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삿된 마군이가 바른 법을 침노하니, 뜻 말이 마음 원숭이를 생각하네.”(邪魔侵正法, 意馬憶心猿) 바로 우리의 뜻을 말로 비유하고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흔히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여기서 용마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여 지향하는 뜻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요. 일단 어떤 사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정(情)이라고 합니다. 이 정은 내 마음대로 안되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냥 배가 아파 버립니다. “아프면 안돼! 아프지 마!” 그래봐야 소용없지요. 그러니까 이 정외에서는 수양이 안됩니다. 일단 정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사촌이 땅을 사는 경우에, 배가 아픈 정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촌이 땅을 산 것을 기뻐하는 정도 있거든요. 그러한 정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나오는 정이 시키는 방향을 잘 선택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려는 수양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여러 정들을 살피고 선택하는 것을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부터는 수양이 가능하지요. 유학(儒學)에서 ‘뜻을 성실하게 함

(誠意)을 공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정을 늘 성실하게 살펴서 그 가운데 도덕적인 정을 선택하고 유지하며, 그 정을 따라 행위하도록 하는 것이 수양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유학(儒學)의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유기에서 말하는 뜻도 큰 선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로 경을 가지러 가는 것을 선택하고,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뜻! 그것을 현장법사를 태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용마로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용마를 ‘뜻’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불교적으로 자세히 말하자면 단순한 뜻이 아니라 올바른 정진(精進)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서유기의 설정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지요.

인도로 경을 가지러 가는 일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현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용마, 그렇게 다섯이지요? 이 다섯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른 견해들도 있고, 서유기의 대목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해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열반을 향해 나가게 하는 다섯 가지 힘, 즉 오력(五力)을 말한다 합니다. 그 다섯 가지 힘이란 첫 번째가 믿음의 힘(信力)이며 두 번째는 정진의 힘(精進力), 세 번째는 바른 생각의 힘(念力), 네 번째는 바른 선정의 힘(定力), 다섯 번째는 지혜의 힘(慧力)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유기의 다섯 주인공을 오력에 한번 배치시켜 보세요. 잠시 검토, 아니 시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작성 끝났나요? 그럼 정답과 대조해볼까요? 현장법사는 믿음의 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용마가 바로 정진의 힘에 해당하

구요. 저팔계는 바른 생각의 힘에 해당하는데, 바로 게으름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염(念)’이라는 것은 탐욕과 근심 걱정 등을 항복받는 것을 말합니까요. 그리고 사오정은 선정의 힘에 해당하지요. 사오정은 본래 물귀신입니다. 쉽게 요동치는 물, 그렇지만 본래적인 고요함을 가진 물의 두 측면을 나타냅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극복하고 고요함을 얻어야 하는 존재이기에 서유기에서 거의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오공은 지혜의 힘에 해당합니다. 이견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익숙하게 아시는 이야기지요?

자~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용마가 나서고, 저팔계를 설득하여 손오공 찾으러 보내는 대목이요? 이것은 바로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니 한 방향을 향해 나가던 뜻, 올바른 생각으로 노력을 기울이던 뜻이 감정과 욕망을 달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욕망은 자칫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거나, 나태와 안일에 빠지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 상징이 바로 저팔계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의 상황에서도 바로 모두 팽개치고 고가장에 돌아가 사위노릇이나 하려는 행태를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변함없는 뜻이 설득하는 겁니다. 그 눈물겨운 설득의 대사 하나만 읽어볼까요?

“형님, 절대로 태만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절대로 헤어지지는 말은 하지 마세요. 사부님을 구하려면 형님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손오공이요. 앞의 오력에서는 지혜의 힘에 해당하는 손오공, 그리고 지혜의 힘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가진 가장 큰 힘이지요. 어떤 경우는 그냥 마음 원숭이라 불리는 손오공이요.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반야지혜로 완성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정진의 힘인 용마가 엇갈린 길로 들어서는 욕망을 구슬려서 지혜의 힘을 발리려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

저팔계가 그 본성 때문에 잠시 농뿔이를 부리고 탄 길을 헤매지만, 큰 깨달음을 향한 서원을 낸 존재지요. 용마의 간절한 설득에 손오공을 데려오기 위해 떠납니다. 한 짓이 있으니 좀 쭈뼛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용게 꼬를 내어서, 손오공을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오는 데 성공하네요. 한편으로는 현장법사가 그래도 손오공을 꼭꼭이 생각한다고 해서 손오공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지요. 다음에는 요괴가 손오공을 완전히 깔보고, “단배에 때려죽여 원숭이 짓갈을 만들어 버리겠다”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 다시 손오공을 울컥-컱컱-컱... 그래서 아무튼 성공입니다. 집나간, 아니 집에서 쫓겨난 손오공 다시 복귀신고를 하고 요괴 때려잡기에 나섭니다. 호랑이로 억지 둔갑을 한 현장법사 구하러 나섭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이 요괴, 정말 수상해요. 비보통인 요소가 많아요. 손오공도 쉽게 물리칠 수 있을지... 좀 걱정인데요. 애고, 나칠게만... 뻔한 전개, 이미 알고 있다는 저 표정! 알았어요. 정말 뻔한 전개니, 다음 시간에 봐요!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1)364-4747

2) 입종 후 발급증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주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장정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 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전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위원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숙오 석수오	승정원장 석원정	총회위원장 석덕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문화원	포교원	기획원	교육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장 석실산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장 석철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강서총무원장 석해륜		대전총무원장 석법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해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원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운오 의전부장 석영오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원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회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위원회 대지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부산 제2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시부 제2총무원 해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